

매출 20% 뚝... 대형 음식점·술집 '금연' 속앓이

150㎡ 이상 다중이용시설 금연법 시행 열흘

단골들마저 발길 돌려...업종 전환 고민 동네 호프집 등 소규모 업소 반사이익

“손님이 20% 이상 줄었어요. 흡연이 금지되니 오랜 손님도 다시 나갑니다.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줄어줄지 걱정부터 앞서네요.”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이자가야’(일본식 술집)를 운영하는 임모씨는 지난 1일부터 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 열흘만에 매출이 20% 이상 떨어졌다고 하소연했다. 임씨의 업소 규모는 170㎡로 금연법에 적용되는 150㎡(45평)를 넘어 금연 음식점으로 지정됐다. 금연스티커를 붙이고 재떨이를 식탁에서 치운 뒤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흡연 가능 여부를 묻고 발을 되돌리기 일췌다. 서구 화정동에서 규모가 큰 ‘바’(Bar)를 운영하는 김모씨 역시 이달 들어 매출 급감에 시달리고 있다. 흡연 손님이 많았던 이 가게에 재떨이가 사라지자 손님들은 불만을 넘어 ‘재떨이를 내놓으라’며 김씨와 실랑이까지 벌였다.

김씨는 “바텐더와 마주 앉아 얘기를 즐기는 업소 특성상 흡연이 자유로웠는데 일순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단골마저 발길을 멈췄다”며 “흡연 손님이 매상도 많이 올리는 편이었는데, 그런 손님이 찾지 않게 돼 업종 전환 고민까지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1일 법 시행과 함께 금연구역이 지정된 대형음식점·주점 업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흡연 손님

들이 흡연이 가능한 작은 규모의 가게로 발길을 돌리거나 ‘재떨이가 없으면 종이컵’이라도 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매출 감소는 물론, 가게 이미지에 제고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업주들은 “돈을 들여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지하에 영업장이 있는 업소의 경우 타격이 더 크다. 흡연 손님 대부분이 흡연을 위해 1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찾지 않는 일이 더 많다.

금연법은 가게에서 재떨이를 제공하고, 출입구 및 업소에 금연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1차 적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무지구의

경우 서구청은 현재 매주 수·목·금요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하루 10개 업소를 무작위 방문·단속을 실시중이다. 아직 흡연으로 적발된 업소는 없지만, 서구청은 광주시와 합동으로 야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음식점들이 갑작스런 불황에 시달리는 반면 금연구역 지정을 받지 않은 소규모 업소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흡연이 가능한 동네 호프집은 흡연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흡연자인 박모씨는 “일정 규모를 넘으면 무조건 금연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흡연이 가능한 작은 가게를 찾게 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서비스 품질지수 고속버스터미널부문

금호터미널 4년 연속 1위

금호터미널(유·스퀘어·사진)이 ‘2013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에서 고객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 1위로 선정됐다. 금호터미널은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4점이 더 높아진 86점을 받아 2010년 고속버스터미널부문이 신설된 뒤 4년 연속 서비스 품질지수 1위를 차지했다.

금호터미널은 현재 우체국과 은행, 경찰지원센터 등을 고객 편의를 위해 운영중이며 자체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 서비스 실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인 점, 안내센터에 24시간 근무자가 상주해 고객 불편을 즉시 해결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는 고객이 느끼는 해당 서비스의 품질을 나타내기 위해 매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올해는 고객과의 대면 서비스가 이뤄지는 총 29개 부문 120개 기업·기관을 선정해 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임윤 유·스퀘어 문화홍보팀장은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전남도 공중시설 흡연 단속 56건 적발

전남도는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단속 등으로 5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는 1일부터 6일까지 도내 시군 공무원 20명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1494곳을 점검했다.

도내 금연 대상 건물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음식점, 의료기관 등 1만3천950곳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미설치 37곳,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4곳, 흡연 금지 위반 15명으로 모두 주의와 시정 조치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1차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2차 단속 때 다시 점검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며 “흡연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기아자동차가 10일부터 25일까지 홈페이지(www.kia.com)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가족(3인 기준, 총 600명)에게 가족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응모는 누구나 가능하며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하면 된다. (기아자동차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사랑 대축제’

신세계·삼성전자 등 동참 할인·사은품 이벤트

금호타이어가 광주신세계, 삼성전자 등 지역 대표기업과 손잡고 제품을 할인판매하는 ‘광주사랑 대축제’를 실시한다.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참여 기업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할인판매 및 구매 사은품 증정 등 실질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지역 타이어프로 매장에서 타이어 구매시 할인 행사를 열고,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고객에게는 KIA타이어즈 홈페이지 관람권(2매)을 증정한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참여기업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광주사랑 대축제 쿠폰북’(사진)은 타이어 구매 고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혜택이 담겼다. 삼성전자와 광주신세계도 자사 제품 구매시 사은품과 상품권을 증정한다. 삼성카드도 가맹점 할인쿠폰을 쿠폰북으로 제작, 금호타이어와 광주신세계 고객들에게



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김창주 금호타이어 광주지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 기업들에 애정을 쏟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기업들이 하나로 뭉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올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40여곳 지난해보다 늘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인 C·D 등급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작업도 시작돼 오는 11월 최종 기업이 나온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경북 구미의 대구은행 구미영업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올해 구조조정 대상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지난해 1806개 대기업 중 549개사를 세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설사, 조선사, 반도체업체, 디스플레이업체 등 3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조조정 대상은 40곳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취약업종의 실적 악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육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올해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까지 취약업종으로 선정돼 평가 대상기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1830.35(+13.50)	519.34(+3.49)	2.99%(-0.01)	1141.70원(-10.60)

산단공 호남본부 ‘기업투어’에 선정된 ‘우성정공’

이중사출금형 신기술 개발 비용·생산 시간 절반 줄여

이중사출금형 기술개발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우성정공(대표이사 박화석·광주시 북구 대촌동)이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가 실시한 첫 기업투어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업투어 행사는 산단공이 독자적인 홍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언론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클러스터 회원사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강소기업에게 기업투어와 PR지원 대행 등을 진행한다.

지난 1993년 자본금 2억5000만원, 15명의 종업원으로 출발한 우성정공은 플라스틱 사출 금형 및 다이캐스팅(정밀주조) 제작 전문업체로 시작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스웨덴 MG사와 금형기술을 제휴, ‘이중사출금형’을 개발했다. 이

금형이 있기 전까지 다른 성질의 두 가지 재질로 하나의 제품을 만들 경우, 기존에는 별도 사출해 결합해야 했지만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중사출금형’은 비용절감은 물론 제품생산시간도 기존보다 2배가량 앞당기면서 금형선진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스웨덴과 일본, 중국, 헝가리 등을 무대로 지난 2008년 540만 달러, 2009년 580만 달러, 2010년 1200만 달러 등 매년 수출실적을 쌓고 있다.

박화석 우성정공 대표는 “기술만이 생존이라는 명제 아래 매년 신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정부지원 산학관계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순정파 먹거리 남원

충향애인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빨라질수록 새로운 것에 자꾸 사로잡히고 간편해진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먹거리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언제나 변함없는 충향애의 마음처럼 농민의 진심을 지켜드립니다

남원시